

특집1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

경상남도 통영시, 대상(大賞) 수상 해안가 유입 폐부자도 적극 수거



축사를 하는 최주섭 부회장



격려사를 하는 류연기 과장

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11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이 5월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되어 경남 통영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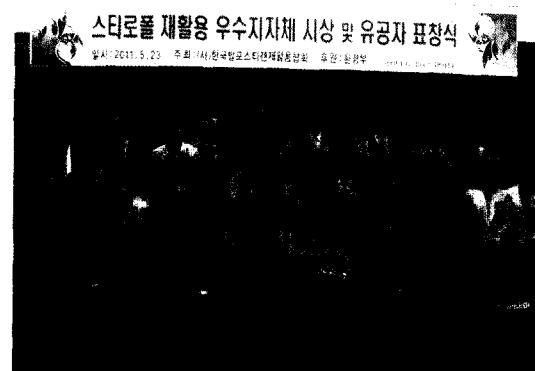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뿐 아니라 해안가 유입 수산물 양식용 스티로폼 폐부자도 수거·재활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통영시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장, 협회장 공로패와 부상 3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 도심지역으로 회수의 어려움 등이 있음에도 전용 차량 투입 등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 발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보여 최우수상을 수상, 환경부장관 표창장, 협회장 공로패 및 부상 2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 부산 남구 등 14개 지자체에 우수상으로 협회장 감사패 및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었

- 2011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

구분	지자체명
대상	경남 통영시
최우수상	서울 영등포구
우수상	부산 남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울산 북구,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충남 논산시, 충북 영동군, 전남 고흥군, 전북 완주군, 경북 청도군, 제주 제주시(이상 14개소)
장려상	부산 강서구, 경남 고성군, 거제시, 남해군, 창원시(마산, 진해 통합), 전남 여수시, 신안군, 전북 부안군, 충남 보령시,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이상 11개소)

- 2011년 스티로폼 재활용 유공자

성명	소속	직위	수상사유
강진구	유진산업발	대표	협회 재활용 지정사업자(경기 화성)
김숙자	주례원	대표	협회 재활용 지정사업자(인천)
강춘식	클린리아프뉴스	대표	스티로폼 재활용 홍보
홍치선	한국농어민신문	국장	스티로폼 재활용 홍보
한태영	환경공단	차장	공단 부당금업무 양식용 부자 자발적협약 협력
황삼주	경남 통영시 어업진흥과	주무관	양식용 부자 재활용 협력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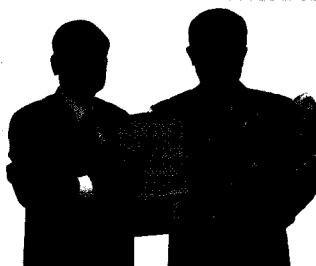
일시: 2011. 5. 23. 주최: (사)한국별포스티렌재활용협회

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청사

특집1

수범지자체 소개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는 인구 14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는 항구 도시이다. 특히 44개의 유인도와 482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다도해 지역 특징을 살려 전국 굴의 70%를 생산할 정도로 수산양식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수산 양식업의 발달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자의 사용에 따른 폐부자 처리가 청소행정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시는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어업인, 환경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해안변 폐스티로폼 분리수거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계용 스티로폼 감용기 1기(용량 200kg/h) 이 외에 어업용으로 고정식 감용기 1기(용량 100kg/h)와 폐부자 발생의 특성을 감안 이동차량에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발생처에 구애 받지 않고 처리하는 이동식 감용기 1기(용량 80~150kg/h)도 운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는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 내 친환경상품 전시장을 운영하여 친환경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 다양 배출자들을 중심으로 분리 수거 및 재활용 가능자원임을 홍보하여 배출자가 감용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의식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는 시가 추구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목표의 달성을 더욱 앞당길 것이다.

폐스티로폼 연도별 재활용 현황

